

John S. Bohannon. *Preaching and The Emerging Church: An Examination of Four Founding Leaders: Mark Driscoll, Dan Kimball, Brian McLaren, and Doug Pagitt*. Seattle: CreateSpace, 2010. 318 pages. \$18.95.

존 보한논(John S. Bohannon)은 남동부 침례신학교(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North Carolina)를 졸업하였고, 그곳에서 2009 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그의 박사 논문은 시애틀, 크리에이트스페이스(CreateSpace) 출판사에 의해 “설교와 이머징 교회: (복음주의적인 강해 설교를 위한) 네 명의 창립 지도자들의 설교 연구: 마크 드리스콜, 댄 김벌, 브라이언 맥크라렌, 그리고 덕 페길” 이라는 제목으로 2010 년에 출판되었다. 그는 2003 년에 버지니아주(Virginia) 레이크 컨추리(Lake Counter)에 소재한 “워터 에지 커뮤니티 교회” (Water's Edge Community Church, Virginia)를 교인들과 함께 개척하였고, 현재까지 그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보한논(Bohannon)의 책 도입부(Introduction: chapter one, pp. 14-18)와 Part One (chapters two and three, pp. 20-59)은 북미 상황에서 근대주의에서 탈근대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 배경을 소개한다. 또한 저자는 탈근대주의가 북미의 교회들에게 미친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력들과 부정적인 영향력들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된 이머징 교회 운동(Emerging Church Movement)이 역사적으로 성장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보한논은 이머징 교회 운동을 대표하고 대변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네 명의 왕성한 창립 운동가이자 신학자, 열정적인 설교자, 그리고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는 브라이언 맥크라렌(Brian McLaren), 덕 페길(Doug Pagitt), 댄 김벌(Dan Kimball), 그리고 마크 드리스콜(Mark Driscoll)을 소개한다.

Part Two (chapters four through eight, pp. 60-162)에서 보한논(Bohannon)은 네 명의 설교자들이 성경과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들, 그들 고유의 설교 철학, 그리고 그들 고유의 설교 방법론들을 분석한다. 특히, 8 장 (chapter eight, pp. 150-162)에서는 네 명의 설교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도표를 제공하고 있다.

Part Three 에서, 저자는 네 명의 설교자를 평가하면서, 복음주의적 강해 설교의 적합성과 성경적 계시의 타당성에 근거하여, 두 가지 흐름으로 그들을 분류한다. 사실상 이러한 판단의 기준은 보한논 자신의 개인적인 복음주의 신앙과 보수적인 신학이 반영된 것이다. 9 장에서 브라이언 맥크라렌과 덕 페길은 수정론자들(Revisionists, chapter nine, pp.166-230)로 분류되고, 10 장에서는 댄 김벌과 마크 드리스콜이 적합한자들(Relevants, chapter ten, pp.231-270)로 분류된다. 보한논은 성경과 복음의 진리, 설교의 권위, 그리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교와 복음전도를 훼손시키는 비판과 경계의 대상으로 수정론자들을 규정한다. 반면, 탈근대주의 상황에서 복음주의적 강해 설교를 위한 설교 신학, 철학, 그리고 방법론을 성장시키는 바람직한 대안적 모범으로 적합한자들을 평가한다. 보한논(Bohannon)의 관점에서, 이러한 대조적인 두 가지 흐름의 분류는 이머징 교회 운동 내부에 설교의 메시지, 철학, 방법론에 대해 전혀 다른 두 가지 관점들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책의 공헌도는 이머징 교회 운동과 그 운동 과정에서 잘 알려진 설교자들과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할 때 평가받을 만하다. 네 명의 설교자 각각은 근대주의에서 탈근대주의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그 상황을 대응하고 있다. 독자들은 설교가 예언자적인 소리로써, 세상을 향하여 포괄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보한논의 관점 즉, 설교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정의를 위하여 지지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한논의 견해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많은 독자들은 또한 복음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함께 고민하게 될 것이며, 네 명의 설교자들 중 몇 명으로부터 효과적인 이야기 설교의 가능성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와는 달리 보한논이 매우 교조주의적인 분류를 통해 네 명의 설교자들을 두 흐름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많은 독자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며, 특히 네 명의 설교자에 대한 저자의 평가 기준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자 자신의 평가와 단정들이 지나치게 근대주의적이기 때문이다. 즉, 저자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무오류성, 복음의 절대불변의 진리성, 권위 없는 자로서 회중과 함께 참여하는 복음의 증인, 동역자, 이야기꾼으로서의 설교자상보다는, 오히려 설교자가 만나게 될 회중들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왕의 권력을 이양받은 대사관 혹은 왕의 특명을 받은 사신으로서의 설교자상을 지지하면서 마치 근대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보한논(Bohannon)의 책은 또한 이머징 교회 운동을 대표할 만한 여성 지도자들, 여성 설교자들을 찾는데 실패한 것 처럼 보이며, 오늘날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급속도로 퍼져 성장해 가고 있는 다양한 이머징 신앙 공동체와 그 지도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포용하고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태생적으로 연구의 제약과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이머징 교회 운동 내에서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네 명의 탁월한 지도자들의 설교를 저자가 철저하게 연구하며,

그들의 설교 신학, 철학, 방법론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비교적 명확하게 분류, 분석하고 있는 점에서 보한논(Bohannon)의 노력을 존중하고 그 노고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김남중

뉴저지 드류 신학 대학원, 메디슨, 뉴저지